

“물길 잇는건 미루자”

李대통령 대운하 단계별 추진 의사 내비쳐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강을 하수 구인양 쓰는 곳은 우리나라 말고는 없다. 이런 것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북도청에서 열린 대구·경북도 업무보고에서 김병일 대구시장이 “홍수로 인한 피해 복구비가 연간 8천억원 정도에 달한다”고 보고한 데 대해 “홍수기, 갈수기 이런 게 말이 안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대운하 구간 중 낙동강 운하를 먼저 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 “외국은 운하를 친환경적으로 한다. (물길의 각 구간을) 잇고 하는 것은 국질이 불안해 하니까 뒤로 미루고~”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구·경북이 하늘 길과 물길을 여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지방단체

에서 철저히 해 주면 이르면 내년부터 경제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 발언은 대운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여권 내부에선 국민적 반대가 큰 대운하를 원안대로 강행추진하기 보다는 여론의 저항이 적은 기존의 ‘뺏길 정비’ 부분부터 시작하고,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연결 공사’ 부분은 여론을 수렴하면서 계속 논의하는 수정제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한미 FTA(자유 무역협정)와 관련, “우리나라가 중국과 일본에 사이에 끼어 샌드위치라고 말하는데 한미 FTA가 비준이 되고 효력을 발휘하면 샌드위치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한미 FTA 조기비준을 거듭 촉구했다.



쓰촨성 지진으로 숨진 올해 12살된 아들 팡칭웨이의 사진을 들고 있는 한 여성(오른쪽)이 21일 쓰촨성 미엔주의 푸싱초등학교 잔해 앞에서 자녀를 잃은 같은 처지의 여성들과 함께 울고 있다. /연합뉴스

中 지진 경제 손실 78조원

사망·실종자 7만2천명...건물 536만채 붕괴

중국 정부는 20일 쓰촨성을 강타한 리히터 규모 8.0의 원환 대지진으로 인한 사망 및 실종자 수를 7만2천여 명으로 집계했다.

중국 국무원 지진구체총지휘부는 이날 오후 6시 현재 원환 대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4만75명, 실종자 3만2천361명, 부상자는 24만7천645명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따라서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는 7만2천436명으로 집계됐다. 또 지진 현장에서 구조된 사람은 36만159명이며 이 중 6천375명은 건물 더미 밑에 매몰됐다가 구출됐다.

중국정부는 원환 대지진으로 붕괴된 건물은 536만채, 파손된 건물이 2

천100만채이며 쓰촨성 등 10개 성과 직할시, 434개 현이 이번 지진의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중국정부는 집을 잃고 거주할 곳이 없는 이재민 500만 여명에 대해 이달 말부터 3개월동안 1인당 매일 10위안(1천500원)의 보조금과 500g의 식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지진으로 부모를 잃은 고아와 배우자 및 자녀를 잃은 노인, 장애인인 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3개월 동안 매달 600위안(9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중국 국가지진대에 따르면 20일 정오 현재 쓰촨성 일대에서 리히터 규모 4.0 이상의 여진이 발생한 것은 모두 159차례였으며 5.0 이상은 26차

레, 6.0 이상은 4차례였다.

이와 관련, 중국과학원 수석과학자인 뉴 위위안 국무원 참사는 이번 원환대지진으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 손실이 최대 1천500억위안(22조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지진으로 인한 피해액이 무려 78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중심의 류정산 박사는 직접적 손실액의 규모를 5천252억위안(약 78조원)으로 잡았다. 이는 인명과 재산, 기업의 피해액과 인프라 손실을 모두 합한 것으로 지난해 중국 국내총생산(GDP) 24조 6천600억위안의 2.1%에 이르는 금액이다.

오바마, 선출 대의원 과반 확보

민주 경선 승리 사실상 확정...매케인과 양자대결 본격화

李대통령 방중 대비 ‘야간 자습’ 몰두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27~30일로 예정된 첫 중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준비에 여념이 없다.

최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논란 등 국내 현안이 산적해 있으나 최대 무역상대국이자 북핵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외교·경제적 중요도를 감안,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

청와대 관계자는 4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이 대통령은 방중을 앞두고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 김병국 외교안보수석, 김중수 경제수석 등을 수시로 불러 방중 관련 보고를 듣고, 필요한 경우 사안별로 집중 토론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최근에는 통상 업무시간이 끝난 밤에 청와대 집무실에서 혼자 중국 관련 보고서를 검토

하거나 관저로 자료를 챙겨가서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낮시간 때에는 내·외부 일정이 계속되는데다 국내 현안 보고도 이어져 집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방중에 대비해 이 대통령이 가장 공을 들이는 분야는 역시 ‘경제’. 수행경계인이 지난 방미·방일 때보다 12명이나 많은 38명에 달하는 등 방중 일정이 경제에 집중돼 있고,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도 외교보다는 경제·통상 쪽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지난주부터는 거의 매일 경제수석실 산하 비서관들을 집무실로 불러 각 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양해각서(MOU) 체결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20일(현지 시각) 실시된 미국 민주당 오리건주와 캔터키주 경선을 계기로 선출직 대의원의 과반수를 확보,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의 접전을 사실상 마무리짓고 공화당 후보로 확정된 존 매케인과 양자 대결구도를 굳혔다.

힐러리는 이날 캔터키주 경선에서 65% 지지율로 오바마(30%)를 누르고 압승했으나 오바마는 오리건주에서 승리를 누려 1월 이후 미국 56개 지역에서 실시된 경선 대의원의 과반수를 확보했다.

오바마는 캔터키와 오리건 경선 직

전 선출직 대의원 1610명을 얻어 전체 선출대의원 3천253명의 절반에 17명 모자랐으나 총 103명을 뽑는 두 지역 경선을 통해 과반수를 상당수 넘어선 것으로 미국 언론은 추산했다.

오바마는 또 당연직인 ‘슈퍼 대의원’을 합칠 경우에도 모두 1천940명을 확보, 힐러리(1천759명)를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AP통신은 집계했다. 오바마는 오리건·캔터키 경선이 끝나면 민주당 대선 후보 확정에 필요한 ‘매직넘버’ 대의원 2천266명에 50~75명 차이까지 다가설 것으로 AP는 추산했다.

오바마는 이날 선출직 대의원의 과반수인 1천627명을 확보한 직후 아이오와 디모인에서 연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은 대선 도전에 나선 자신이 얼마 못갈 것이라고 말했지만 1월 3일 아이오와 경선 승리를 통해 미국인들의 변화 열망이 표출됐다”며 “미국이 변화가 오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로써 올 미국 대선은 민주당 오바마와 공화당 매케인의 양자대결로 치러질 것이 확실시되며 양 진영은 이미 정치, 외교, 경제 문제 등을 놓고 상대방을 집중 공격하는 등 양자 대결을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 민주당 대선주자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일리노이주)이 18일(현지 시각)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워터프론트 파크에서 유세중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北 6자회담전 영변핵시설 냉각탑 폭파”

김숙 6자회담 수석대표

英의회 인간-동물 교잡배아 허용

영국 의회가 동물 난자에 인간 DNA를 주입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고 BBC뉴스, 가디언 등 영국 언론이 20일 보도했다.

하원은 19일 ‘인공수정 배아법’ 수정법안 중 보수당 에드워드 리 의원이 제안한 인간·동물 교잡 금지 조항을 찬성 176, 반대

336표로 부결시켰다.

고든 브라운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 정부는 1990년 제정된 인공수정 배아법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중이지만 윤리 논란에 휩싸이자 이종배아 금지 등 4개 조항을 놓고 의회에서 개별 표결을 실시하고 있다.

를 미국측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 김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3자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이 제출한 신고서 내용과 북한에서 받아온 신고 보증자료에 대한 검토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그러나 “(북한이 미국에 전달한) 핵프로그램 신고내용과 신고보증 서류 내용에 대해선 검토가 이달 초 방북했던 성 김 미 국무부 한 국과장을 통해 핵프로그램 신고명세

그는 북한이 미국에 건넨 핵프로그램 신고와 관련, “북한이 미국에서 신고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한 것은 아니다”면서 “지난 번에 성 김 국무부 한 국과장이 두 차례 방문했을 때 구두로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삭제 시기와 관련, 김 본부장은 “미국측은 꼭 집어서 언제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할 지 날짜를 지정하지는 못했다”면서 “상황적으로 조만간 북한의 핵신고가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과 북한은 6자회담의 추동력을 얻기 위해 북핵 폐기의 첫단계인 영변 핵시설 냉각탑 해체를 6자회담 재개 이전에 실시키로 합의했다

북핵 6자회담 한국측 수석대표인 김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0일 밝혔다.

북한은 또 이달말께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핵프로그램 신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앞서 이미 이달 초 방북했던 성 김 미 국무부 한 국과장을 통해 핵프로그램 신고명세

“자식들한테 바랄게 뭐 있나?
모두 건강하게 살아주면
그게 고마운거지!”

“요즘 효자가 별건가 그저 아무 탈없이 건강하게 살아주면 그게 효자지”

당신의 이 한마디가 자식들에게 힘이 되고 건강이 됩니다.
당신의 이 마음처럼 당신께서도 늘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건강을 낳고, 건강이 행복을 키웁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좋은 약을 만들게 합니다.
국제약품은 모두가 생명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코엔자임 Q10 함유 종합영양제
국제-에이스 큐텐

비타민 A, C, E 및 보충
- 국제-에이스 큐텐, 코엔자임 Q10, 비타민 A, C, E
- 뉴트린, 인삼, 생강, 녹차, 홍차, 허파, 인삼, 녹차
- 생강, 홍차, 녹차, 인삼, 생강, 녹차, 홍차, 허파, 인삼, 녹차
- 인삼, 생강, 녹차, 홍차, 허파, 인삼, 녹차
- 인삼, 생강, 녹차, 홍차, 허파, 인삼, 녹차
- 인삼, 생강, 녹차, 홍차, 허파, 인삼, 녹차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
http://www.kunenfarm.co.kr

아연의 보충
*아연보충제(1000mg) 1000mg